

'광주의 미래' 초광역 그린·스마트·편 시티 밑그림 나왔다

광주시 대전환 특위,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비전·전략 중간보고 4대 전략 26개 과제 발표...6월까지 구체화해 민선 8기에 제안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초광역 그린·스마트 편 시티 조성의 밑그림이 나왔다.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 산하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28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복합소핑물 유치, 무등산 접근성 제고 등 광주의 미래비전과 전략, 분야별 대표 세부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대전환 특위는 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미래 비전을 광주의 외적, 내적 성장을 의미하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 '초광역 그린(Green)-스마트(Smart)-편(Fun)' 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또 위원들이 제출한 총 65건의 기획안과 외부 전문가 제안 중 광주 미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26건의 사업을 분과별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추후 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해 민선 8기에 제안하기로 했다.

장석주 대전환 특위 위원장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는 광주의 외적·내적 성장을 의미한다"며 "더 큰 광주는 '초광역 슈퍼 리전(Region)' 조성을 전략으로 하는 광주의 외형적 공간 확대, '더 강한 광주'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는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을 통한 광주의 내적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 슈퍼 리전(region) 분야는 상상·협력의 지방화시대 견인을 목표로 ▲인접 시군과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영산강 초광역 생태·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 ▲호남권-동남권-대경권 초광역 남북경제권 구축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린 분야는 ▲늘 푸른 도시 광주 ▲기후위기에 맞서는 탄소제로 도시 광주 ▲미세먼지 맑음 도시 광주' 등을 3대 전략으로, 7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2개 대표 과제는 '친환경 운송수단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 등이다.

스마트 분야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는 디지털 도시 광주 ▲인공지능이 키우는 성장도시 광주 ▲인공지능이 지켜주는 안전·안심 도시 광주를 3대 전략으로 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2개 대표과제는 '광주형 가상융합 도시공동체 플랫폼 구축'과 '광주형 인공지능 인제·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이다.

시민의 관심이 높은 편(fun) 분야는 ▲테마관광 도시 광주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문화콘텐츠 생산 도시 광주를 3대 전략으로 8개의 과제를 포함했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 산하 대전환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석주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과 위원들이 '미래비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며, 2개 대표과제는 '광주 EBS 캐릭터랜드 조성'과 '대형 복합소핑물 유치' 등이다.

특히 최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복합소핑물과 관련해선 소핑물 입지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이 논의됐다. 입지와 관련해선 도심과 외곽의 장단점에 대한 위원단 집중 토론이 진행됐으며, 타 지역 복합 소핑물 유치 사례 등

을 토대로 상생협력기금 조성, 지역인재 우선 채용, 판매 품목 조정과 지역 농수산물 직판매장 입점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위원단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6월 최종적으로 민선 8기 집행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은 기존의 틀과 고정관

념을 깨는 혁신적 발상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면서 "광주 대전환 특위"가 민선 7기 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많은 지혜와 정책을 제안해주길 바라며, 제안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월 시행 탄소중립기본법 토대 지역 전략 구체화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정책연구 발표

광주전남연구원 3월 본격 시행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광주·전남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체계 및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8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특집주제로 '광주전남 정책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인지에 산 등 대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과 전남 주력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탄소흡수원 관리방안

등을 살펴본 후, 광주·전남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을 토대로 광주·전남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행계획 마련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탄소중립 R&D 역량 강화 ▲시·도민의 참여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우진 부소장은 ▲지역탄소중립 정책·정보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영향평가 분석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호남 RE300 협력체계 구축 ▲기후위

기 적응정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조정·통합을 위한 재정 수단인 탄소인지에산의 국내·외 동향 및 경기도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탄소인지에산의 지자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최경호 전남테크노파크 신산업기획팀장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남 주력산업은 전남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소환원 제철기술, 석유계 원료 대체제 생산기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인공지능(AI) 등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및 탄소순환 최적화 ▲지속가능한 제조 혁신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본격화

4개부서 8개사업 통합 공모 168개 마을 11억63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광주형 마을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4개 부서가 통합공모로 추진한 '202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68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11억6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청소년 화해놀이터 운영 ▲공유육진사업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여성가족친화마을 ▲도시농업 특화마을 등 8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각 사업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한 마을 공동체를 총괄조정위원회의 사업 중점성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2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시정소식-고시·공고)를 공개한다.

각 분야별로 진정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13개 마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50개, 마을 내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52개 등을 선정했다.

또 청소년의 갈등, 학교폭력 문제 등을 마을, 학교, 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화해놀이터 운영 4개 공동체, 시민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육진사업에 9개 공동체 등을 선정했다.

시는 이 밖에도 마을의 복지수요 파악을 통한 통합 돌봄 연계 및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 15개,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사업에 13개 공동체를 선정했으며, 마을 내 유휴공간을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농업 특화마을 12곳 등을 포함했다.

광주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치구, 광주 시도사회생공동체센터,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마을 내 다양한 공동체가 협력해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공동체 정신과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주민자치 실현될 수 있도록 2022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여가부 존치 요구 건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신수정) 위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직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과 다양한 가족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건의

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여가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환경복지 위원들은 "지난 대선 시기 우리 사회 전반에 성별·세대간 갈등이 표출된 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성차별구조에 대해 더욱 더 진지하게 접근

해야 할 시기"라며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대로 실행된다면 아직 사회에 남아있는 성별, 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과 한부모·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등 새로운 정부에서도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여성가족부 존치 건의안은 대통령 당선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대통령 (정외대), 국회의장, 국회여성가족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